

KTX 타고 함평나비대축제 보러 가자!

용산역→함평역 KTX 임시정차 상·하행 각 2회 운행

수도권에서 함평나비대축제를 찾는 발길이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함평군은 26일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KTX가 함평역에서 임시 정차한다”고 밝혔다. KTX 함평역 정차는 수도권·충청권에서 나비대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코데일의 배려로 이뤄졌다. 운행 구간은 ▲하행선 행신(07:18)→함평(10:03), 용산(08:20)→함평(10:34)과 ▲상행선 함평(16:05)→행신(19:05), 함평(18:18)→용산(20:46)으로 상·하행 각 2회씩 총 4회 운행한다. 아울러, 함평군은 열차를 타고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함평역~축제장 간 셔틀버스 운영, 입장권 현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나비대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나비 날리기, 나비·황박이 팝업스토어,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 쇼, 나비·슬라임 스쿼시 만들기, 나비공주·팻드레스 의상실 체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2025년 강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억 원 달성

고향사랑 기금사업 ‘홀로사는 노인 클린-업’ 본격 추진

강진군이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억 원을 달성하며, 국민과 출향인들의 따뜻한 강진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한 홍보와 참여 분위기 조성의 성과로, 전국에서 강진을 향한 애정어린 응원의 행동이 모인 결과이다. 강진군은 이달 25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억 원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023년 4억5,000만원, 2024년 4억9,000만원에 더해 누적 기부금 10억4,000만 원을 돌파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운용 현황은 매년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기부자들의 효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전년도 고향사랑 기금사업인 마을 공동 빨래방 조성사업에 강진군 성진

면 복지회관이 선정돼 도·군 기금으로 시행됐다. 올해 군 기금사업인 ‘홀로사는 노인 클린-업’이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의 하나로 읍면 복지회관에 빨래방을 설치, 리모델링하고 경로당의 노후 에어컨, 냉장고를 교체하는 등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현장기부 이벤트, SNS 참여 캠페인, 지자체 및 농업 상생 상호기부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써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가우도즐기기 이용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로 기부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에도 학생들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 설립돼 출연금과 매달 100여 명의 지정 기탁자들, 일반 기탁자들의 기부가 지속되고 있다.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자체 계획에 따라 장학금이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군은 4월 초 2025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확정된 후 최종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들어 현재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된 장학금은 5,200만 원이며, 총 179여 명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올해는 7억9,500만 원 규모로 장학금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 농업의 미래 이끌어갈 신규농업인 교육생 모집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기초 영농 기술교육 추진

보성군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회(40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벼, 감자, 고추, 키워 등 기초 작물 재배에 대한 이론 교육을 비롯해, 작물 생리 이해, 농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농업 관련 세무·법률 기초까지 폭넓게 구성됐다. 또한 선배 귀농인의 농장을 방문해 실

질적인 비결을 배우고, 농업기계 안전 사용 실습 등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으로, 보성군 전입 5년 이내 신규 농업인을 비롯해 청년, 귀농·귀촌 예정자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5월 7일까지며, 교육 신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민상담소에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https://www.boseong.go.kr/atec) 의 교육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기계운영팀 (☎061-850-5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기술을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믿고 드셔도 됩니다” 나주로컬푸드 안전성 검사품목 확대

축산물, 가공식품 등 1200여건 식재료 안전성 검사… 소비자 신뢰 더욱 두텁게

전라남도 나주시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한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품목을 강화한다. 나주시(시장 윤병대)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과 가공품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연간 1200여건의 식재료 안전성을 검사한다. 농산물은 GAP(농산물우수관리) 수준의 살균제, 제조제를 포함한 잔류농약 463종을 검사하고 축산물의 경우 항생물질, 가공품은 이물, 대장균 등 식품 검사를 통해 항목별 적정 허용수치를 확인한다. 소비량이 많은 제철 식재료, 부적합 우려 품목을 위주로 검사 품목을 집중해 선정해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농산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 식약처 지정 민간분석기관(가공품)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축산식품은 출하 연기 또는 정지 등 직매장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 농가는 농약 안전관리 교육, 직매장 출하 전 재검



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과하면 출하할 수 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지난 2022년 도입한 ‘나주로컬푸드 인증제’ 또한 지역 먹거리 소비자의 신뢰도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 산지 농·축산물, 가공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제 신청 전 인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열(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의 경우 나주로컬푸드 공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

부재료 함유 비율이 50% 이상일 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특히 올해 8월부터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에 출하 예정인 농산물, 축산물(계란) 생산 농가는 로컬푸드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인증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시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인증 농가에서는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광군-함평군,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쌓이는 기부금, 싹트는 정, 쪽드는 선물 1석 3조 즐거운 기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5일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함평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영광군과 함평군 건설교통과 직원 34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기관당 200여만 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 발전에 힘을 모았다. 특히, 영광군과 함평군 건설교통과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호 기부를 이어가며 동독한 정을 나누고 두 지역의 건설교통업무 발전을 위한 협력과 우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기부에 참여한 직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니 기부를 한 지역이 더 가까게 느껴지고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영광/이현식 기자

무안군, 산불 예방 총력… 예찰 활동·비상대응 태세 강화

전 직원 1/4 비상근무·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총력 대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현구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산불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대형산불 예방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산불이 21일 경남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대응 2급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발령했다. 무안에서도 소형 산불 1건이 발생했고, 주택 화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월 말부터 산불 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등 36명을 투입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예찰 차량에 GPS를 부착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 직원 1/4 근무 비상 체제를 운영해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식(4월 5일) 전후에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무안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해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가연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새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마음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그대로
더 크게 웃을 것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한드서
잠시
리우고
평범한 것은
가난한 사람
평범한 것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